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밑줄 친 지시어 ㉠, ㉡이 사용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갑: ㉠인 거울 어때? 요즘 유행하는 거야.
을: 그래, 할머니 선물로 ㉡이것이 적당하겠어.

- ① 갑과 을에게 모두 먼 경우
- ② 갑과 을에게 모두 가까운 경우
- ③ 갑에게 가깝지만 을에게 먼 경우
- ④ 갑에게 멀지만 을에게 가까운 경우

2. 의미의 중복이 없는 문장은?

- ① 나는 어머니께 꽃을 갖다 드렸다.
- ② 친구들이 운동장에 다 오지 않았다.
- ③ 언니는 나보다 역사책을 더 좋아한다.
- ④ 나는 예의 바른 친구의 오빠를 보았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모음의 기본자는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인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넓고 평평하며[—],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느[] 모양으로 나타내었다.

(나) 불·휘 기·픈 남·곤 비 르·매 아·니 :뫼 ·씩
꽃 :도·코 여·름·하 느·니
:시·미 기·픈·므·른·ㄱㅁ·래 아·니 그·출·씩
:내·히 이·러 바·르·래·가 느·니

- 『용비어천가』 제2장 -

3. ㉠과 ㉡의 순서로 결합된 모음이 들어 있는 것을 (나)에서 찾으려면?

- ① 남·곤 ② :도·코 ③ 기·픈 ④ ·므·른

4. (나)의 표기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된소리가 사용되었다.
- ② 문장 부호를 사용하였다.
- ③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내었다.
- ④ 이어 적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5.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은 것은?

제26항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길가[길까] ② 꽃밭[꼇빻] ③ 물소[물쏘] ④ 발전[발쩐]

6.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산업 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다량의 온실 가스가 대기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아야 한다. ㉢나는 이번 여름에는 꼭 수영을 배울 것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는 것을 실천해야겠다. 또, 과대
포장된 물건의 구입을 ㉣지향해야겠다.

- ① ㉠은 부적절하므로 ‘다시 말하면’으로 바꾼다.
- ② ㉡은 ‘일지라도’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만약’으로 바꾼다.
- ③ ㉢은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지양’으로 바꾼다.

7. <보기>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권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I. 서론

- 1. 쓰레기 분리 배출의 필요성
- 2. 쓰레기 분리 배출의 실태

II. 본론

- 1.
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한 무지
- 2. 쓰레기 분리 배출 문제의 해결 방안
가. 쓰레기 분리 배출의 필요성 홍보
나.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안내

III. 결론

- 1. 쓰레기 분리 배출 후의 전망
- 2.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 당부

- ① 분리 배출된 쓰레기의 활용 방안
- ② 재활용 제품 생산의 성공적인 사례
- ③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노력 촉구
- ④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원인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풀이 눅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눅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눅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눅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 풀이 눅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눅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눅는다

- 김수영, 「풀」 -

8.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 ③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으로 시적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9. 시어의 의미상 대립 구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풀 - 바람
- ② 웃는다 - 울었다
- ③ 비 - 동풍
- ④ 눅는다 - 일어난다

10. ㉠과 <보기>의 밑줄 친 ‘매화’에 공통으로 내포된 시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보기>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앗을소나

- 안민영, 「매화사」 -

- ① 가족을 위한 희생 정신
- ②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연민
- ③ 시련에 굴하지 않는 의지
- ④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 직원 영감은 자기 혼자서 탔으면 꼬옥 알맞을 버스 한 채를 만원 이상의 승객과 같이 탔으니 남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윤 직원 영감 당자도 무척 고생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갓을 버스 천장에다가 치받치지 않으려고 허리를 구부정하고 섰자니,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그 대신 춘심이는

윤 직원 영감의 겨드랑 밑에 가 박혀 있어 만약 두루마기 자락으로 가리기만 하면 찾샷은 안 물어도 될 성싶습니다.

겨우겨우 총독부 앞 종점에 당도하여 다들 내리는 데 섞여 윤 직원 영감도 춘심으로 더불어 내리는데,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기념이라도 하고 싶은 듯이 제가끔 한 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윤 직원 영감은 버스에서 내려서 대견하게 숨을 돌린 뒤에, 비로소 염낭끈을 풀어 천천히 돈을 꺼낸다는 것이 십 원짜리 지전입니다.

“그걸 어떡허라구 내놓으세요? 거스를 돈 없어요!”

여차장은 그만 소갈머리가 나서 보풀떨이를 합니다.

“그럼 어떡허녕가? 이것두 돈은 돈인디…….”

“누가 돈 아니래요? 잔돈 내세요!”

“잔돈 읊어!”

“지금 주머니 속에서 잘랑잘랑 소리가 나는데 그러세요? 괜히…….”

“으응, 이거?”

윤 직원 영감은 염낭을 흔들어 그 잘랑잘랑 소리를 들려 주면서,

“……이건 못 쓰던 돈이여, 사전이여…… 정 그렇다면 못 쓰던 돈이라두 그냥 받을 티여?”

하고 방금 끈을 풀려고 하는 것을, 여차장은 오만상을 찡그리고는,

“몰라요! 속상해 죽겠네……! 어디꺼정 가세요?”

하면서 참으로 구박이 자심합니다.

“정거장.”

“그럼, 전차에 가서 바꾸세요!”

“그러까?”

잔돈을 두어두고도 십 원짜리를 낸 것이며, 부청 앞에서 내릴 테면서 정거장까지 간다고 한 것이며, 모두 요량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무사히 공차를 탄 윤 직원 영감은 총독부 앞에서부터는 춘심을 앞세우고 부민관까지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좁은 뽀수 타니라구 고생헌 값을 이렇기 도루 찾는 법이다.”

그는 이윽고 공차 타는 기술을 춘심이한테도 깨우쳐 주던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청기와 장수는 아닌 모양입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

11.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은?

- ① 승객의 회상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여차장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진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춘심의의 독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12. ‘윤 직원 영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고집스럽게 규범을 지키려 한다.
- ② 눈앞의 이익을 위해 주도면밀함을 보인다.
- ③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냉정하다.
- ④ 말주변이 없어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13. 윗글에서 외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재는?

- ① 찾샷
- ② 염낭끈
- ③ 정거장
- ④ 부민관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치는 살아 있다”

젖산균이 지배하는 신비한 미생물의 세계

처음에 생기는 일반 세균 새콤한 맛 젖산균이 물리쳐
“우와~ 김치 잘 익었네.”
효모에 무너지는 ‘젖산균 왕국’ “어유~ 군내, 짭 시었네.”
점차 밝혀지는 김치의 과학 토종 젖산균 ‘김치 아이’
유전자 해독 계기로 맛 좌우하는 씨앗균 연구 개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험실의 김치 연구가 거듭되면서, 배추김치, 무김치, 오이김치들의 작은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미생물들의 ‘작지만 큰 생태계’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 20여 년째 김치를 연구해 오며 지난 해 토종 젖산균(유산균) ‘류코노스톡 김치 아이’를 발견해 세계 학계에서 새로운 종으로 인정받은 인하대 한홍의(61) 미생물학과 교수는 “일반 세균과 젖산균, 효모로 이어지는 김치 생태계의 순환은 우리 생태계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흔히 “김치 참 잘 익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치 과학자라면 매콤새콤하고 시원한 김치 맛을 보면 이렇게 말할 법하다. “젖산균들이 한창 물이 올랐군.” 하지만, 젖산균이 ㉠ 물이 오르기 전까지 갓 담근 김치에선 배추, 무, 고춧가루 등에 살던 일반 세균들이 한때나마 왕성하게 번식한다. 소금에 절인 배추, 무는 포도당 등 영양분을 주는 좋은 먹이 터전인 것이다.

“김치 초기에 일반 세균은 최대 10배까지 급속히 늘어나다가 다시 급속히 사멸해 버립니다. 제 입에 맞는 먹잇감이 줄어들는데다 자신이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한 교수는 이즈음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미생물인 젖산균이 활동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젖산균은 시큼한 젖산을 만들며 배추, 무를 서서히 김치로 무르익게 만든다. 젖산균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다른 미생물이 출현하면 수십 종의 젖산균이 함께 ‘박테리옌’이라는 항생 물질을 뿜어 내어 이를 물리친다.”라고 한다.

그러나 ‘젖산 왕조’도 크게 두 번의 부흥과 몰락을 겪는다. 김치 중기엔 주로 둥근 모양의 젖산균(구균)이, 김치 말기엔 막대 모양의 젖산균(간균)이 세력을 펼친다. 한국 식품 개발 연구원 박완수(46) 김치 연구단장은 “처음엔 젖산과 에탄올 등 여러 유기물을 생산하는 젖산균이 지배하지만, 나중엔 젖산만을 내는 젖산균이 우세종이 된다.”며 “김치가 숙성할수록 시큼털털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일보-

14. 윗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②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표제-부제-전문-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설문 조사를 근거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15. 윗글을 읽고 독자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류코노스톡 김치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 ② 갓 담근 김치에서 발견되는 일반 세균의 종류는 무엇인가?
- ③ 김치 초기에 일반 세균이 사멸해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④ 김치가 익을수록 시큼털털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16. ㉠의 문맥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 ① 한창 때에 이르기
- ② 철저하고 빈틈없기
- ③ 분위기가 맘에 들기
- ④ 의도적으로 꿀탕을 먹이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 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 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왔습니다.

생 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 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 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 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出版房)이라. <중략> 이는 기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文房諸具) 불작시면 용장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룡(函籠), 반단이, 셋별 같은 돛요강, 돛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왔습니다.

생 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 다 축여 왔다 그리 하엿소.

양반들: ㉢ (합창) 꿀물에다 축여 왔다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

1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사실을 자세히 설명한다.
- ② 한자어의 사용으로 양반의 권위를 높인다.
- ③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 ④ 익살스럽고 과장된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18. ㉠~㉣ 중,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의 무대 장치가 없으나 배우들은 특정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연기한다.

- ① ㉠ ② ㉡ ③ ㉢ ④ ㉣

19. ‘말뚝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양반을 조롱하는 인물
- ② 양반을 존경하는 인물
- ③ 양반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
- ④ 양반 앞에서 위엄을 보이는 인물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세차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告)하노니 인간 부녀(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嗚呼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 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心身)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懷抱)를 충충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 유씨 부인, 「조침문」 -

(나) 동편의 성수가 드물어, 월색이 차차 옅어지며 홍색이 분명하니, 소리하여 시원함을 부르고, 가마 밖에 나서니, 좌우 비복과 기생들이 웅위하여 보기를 줄이더니, 이윽고 날이 밝으며 ㉠ 붉은 기운이 동편 길게 뻗었으니, 진홍대단 여러 필을 물 위에 펼친 듯, ㉡ 만경창파가 일시에 붉어 하늘이 자욱하고, 노하는 물결 소리 더욱 장하며, 홍전 같은 물빛이 황홀하여 수색이 조요하니, 차마 끔찍하더라.

붉은 빛이 더욱 붉으니, 마주 선 사람의 낮과 옷이 다 붉더라. 물이 굽이쳐 올려치니, 밤에 ㉢ 물치는 굽이는 옥같이 희더니, 지금은 ㉣ 물굽이는 붉기 홍옥과 같아 하늘에 닿았으니, 장관을 이룰 것이 없더라.

- 의유당 의령 남씨, 「동명일기」 -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각박한 세태를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겪은 인상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다.
- ③ 규방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글의 중심 소재이다.
- ④ 여행 중에 본 대상의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21. (가)에서 제문(祭文)임을 알 수 있는 표현끼리 묶인 것은?

- ① 불쌍하다, 행장 ② 미망인, 슬프다
- ③ 정회, 오호 통재라 ④ 유세차, 영결하노라

22. (나)에서 아침에 본 풍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겸재(謙齋) 정선이나 단원(檀園) 김홍도, 혹은 혜원(蕙園)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화보 모방주의(畫譜模倣主義)의 인습에 반기(反旗)를 들고, 우리나라의 정취(情趣)가 넘치는 자연을 묘사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산수화(山水畵)나 인물화(人物畵)에 말라붙은 조선 시대의 화풍(畵風)에 항거하여, ‘밭 가는 농부’, ‘대장간 풍경’, ‘서당의 모습’, ‘씨름 하는 광경’, ‘그네 뛰는 아낙네’ 등 현실 생활에서 제재를 취한 풍속화를 대담하게 그렸다. 이것은 당시에는 혁명과도 같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의 그림이 민족 문화의 훌륭한 유산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 속에서 이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形象化)된 물건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묵수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히 외래 문화를 모방하는 것도 아님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 이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

23. 윗글을 읽을 때의 독서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과 감상을 구분하며 읽는다.
- ② 새로운 사건을 상상하며 읽는다.
- ③ 인물의 갈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④ 주장의 타당성을 파악하며 읽는다.

24. 윗글을 읽고 ‘전통’과 ‘인습’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전통	인습
① 우리나라의 문화	외래 문화
② 김홍도의 작품	신윤복의 작품
③ 창조적 정신	과거의 답습
④ 무시해야 할 것	계승해야 할 것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원효’가 전통을 창조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보기>

원효는 당시의 유행인 서학을 하지 않았다. 그의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가 지은 ‘화엄경탐현기’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이라는 불교계의 인습에 항거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하여 해동종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의 창시자였다.

- ① 민중 불교를 창시한 것
- ②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한 것
- ③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한 것
- ④ 인습에 항거하고 해동종을 연 것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